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기독병원과 협약 체결



광주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대삼)과 광주기독병원(병원장 이승욱)은 21일 광주기독병원에서 공공돌봄 및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의 주요내용은 ▲공공돌봄 및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 보건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이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협력을 통해 긴급돌봄 서비스와 함께 퇴원 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돌봄 중사자 대상 환자별 특성(질병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 돌봄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KT 전남전북본부, 국가유공자 봄나들이 행사



KT 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김진철 상무)와 KT 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위원장 이남권)가 지난 17일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들과 '1일 봄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점검에서는 각 고객 접점 부서가 장애인 전용 화장실, 안내 촉지도, 음성유도기, 안내 표지물, 엘리베이터 등 역사 내 주요 시설물을 면밀히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는 시각장애인용 안내 표지판 개선, 경사로 핸드레일(손잡이) 유지보수 등 도시철도 이용객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조익문 교통공사 사장은 "교통약자의 편리한

공자들에게 안전한 봄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국가유공자는 "이번 나들이는 봄날의 따뜻함과 꽃향기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김연 조선대병원 의료질관리팀장 광주시병원간호사회 회장 선출



조선대학교병원 김연(사진) 의료질관리팀장이 최근 열린 광주시병원간호사회 제36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광주시병원간호사회는 광주지역 내 51개 의료기관의 64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지역 대표 간호사 모임이다.

조선대병원 간호부장을 역임했던 김연 신임 회장은 1989년 조선대병원에 입사해 간호인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활동해 왔으며, 특히 간호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코로나19 감염병관리 활동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전문간호인 양성 기여 등을 실천하는데 앞장섰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김 회장은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갖춰 성장해 나가며 자긍심을 갖고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항상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병원간호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승원 기자 swsewo@kwangju.co.kr

광주조달청, 수요기관 대상 원가계산 실무교육



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우환)은 21일 2층 대강당에서 관내 수요기관 담당자 대상 원가계산 실무 교육을 했다. (사진) 교육은 공공조달 사업 추진 시 필수적인 원가 계산의 이해도를 높이고 km를 적용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광주

조달청 내부 직원과 광주·전남 56개 수요기관의 계약·회계 담당자 2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원가 계산 기본 개념, 비목별 원가 분석 방법, 사후 원가 정산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교통공사, 역사 장애인 편의시설물 점검



도시철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시설물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임택 동구청장, 나눔리더 1호 가입 '나눔이어로' 캠페인 첫 주자 나서



임택(사진) 동구청장이 21일 '광주 나눔리더1호'로 가입하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2025 우리동네 나눔이어로' 캠페인의 첫 주자로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 개인이나 단체가 100만원 이상을 일시 기부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동참하는 것으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동구가 가장 먼저 나눔리더를 배출하며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광주의 1호 나눔리더는 임택 동구청장으로 개인자격으로 기부에 참여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나눔리더 1호'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나눔은 마음을 전하는 자지만 큰 실천"이라며 "동구가 먼저 움직여 따뜻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	KBS1	KBS2	MBC	KBC/SBS
00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레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5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친절한 선주씨(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09	30KBS 뉴스 930	30 신데렐라 게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헬로킴즈 TV생물도감2	30 잘 먹고 잘사는 법 플러스
11	05 동행(재)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신상출시 편스토랑(재)	15 찾아가는 푸르기교실(재) 45 까망과 베르의 푸드트릭	00 푸르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50 한국인의 밥상(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특집 다큐 우리들의 첫걸음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캐리와 친구들
13	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동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14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첫! 내 친구는 빅파이브(재)		00 뉴스브리핑
15	0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첫! 내 친구는 빅파이브(재)	55 기본 좋은 날(재)	
16	00 시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어린이 동물티비(재)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이경규의 경이로운 습관(재)
17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00 라이즈맨 15 슈팅스타 캐치 티니핑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0 트로트 클래스 3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18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40 시사타미 때때부터 50 생방송 투데이
19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크740	50 신데렐라 게임	05 친절한 선주씨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20	30 대운을 잡아라	30 셸범병사의 비밀		30 KBC 8 뉴스
21	00 KBS 뉴스 9	45 스모킹 건	00 100분토론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22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45 아이 러브 스포츠	20 PD수첩	20 신들린 연애 2
23	30 영상앨범 신(재)	10 뽀뽀뽀(재)	20 놀면 뭐하니? 스페셜	
24	00 KBS네트워크특선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 50 생활의 발견	30 스튜디오 K 스페셜	50 MBC 뉴스 25	20 도시락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8:1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3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9:20 고향만국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귀하신 물	19:50 극한직업
〈중년의 여행법, 인도네시아 -다시 한번 뜨겁게, 브로모 화산〉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00 애코와 친구들 수리수리 뽀뽀랜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차마고도 茶馬古道 -마방의 추억, 불산차마고도〉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14:40 클래스 e	21:35 한국기행
07:30 슈퍼왕 슈퍼코보	15:10 고향만국	〈내 생애 불날 2부 -아흔 살 엄마의 봄날〉
07:45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15:40 마사와 곰	21:55 건축탐구 - 집
08:00 똥똥똥 똥똥똥	15:55 불룩스	22:50 EBS 다큐프라임
08:50 하프와 친구들	16:10 똥똥똥 똥똥똥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20 자이언트 팽TV	16:10 똥똥똥 똥똥똥	24:00 클래스 e(재)
09:40 박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3	17:00 페파 피그	24:20 지식채널e
10:30 한국기행(재)	17:10 슈퍼왕 슈퍼코보	
	17:40 도래미 프렌즈 쇼츠	
	17:50 자이언트 팽TV(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2일(음 3월 25일 辛酉)

<p>36년생 불합리함에 대한 적감이 시급하니 머무지 말고 즉시 실행 해야만 한다. 48년생 면밀하고 변통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60년생 전체 중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상정하는 의미는 크다. 72년생 초심을 회복한다면 순탄한 판국을 조성할 수 있다. 84년생 활로를 여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96년생 시기가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24, 64</p>	<p>42년생 지난 세월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54년생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합당하다. 66년생 임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보루로써는 충분하지만 큰 기대는 금물이다. 78년생 준비하고 있어야만 제대로 돌아가느니라. 90년생 징후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02년생 사서 고생할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42, 96</p>
<p>37년생 자기근처에 있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반드시 득이 있다. 49년생 한번 아닌 것은 향후에 그 어떠한 바도 기대할 수 없을을 알라. 61년생 가까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멀다. 73년생 급하게 뛰어다녀야 할 일이 많다. 85년생 지나치다면 미발할만 못느니라. 97년생 요양이 없으면 여러 명을 고생시킨다. 행운의 숫자 : 15, 60</p>	<p>43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을 들이는 것이 합당하다. 55년생 지나친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오만을 야기할 수 있다. 67년생 조금만 더 버티면 내다보면 견고해질 것이다. 79년생 상충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다. 91년생 커다란 구도에서 파악하는 것이 옳다. 03년생 새장에 갇힌 새가 구름을 그리워하는 격이다. 행운의 숫자 : 40, 91</p>
<p>38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다. 50년생 먹구름이 사라지면서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62년생 전체를 이해하는 거시적인 관점을 확보하자. 74년생 과감해야만 실행의 효과가 증폭될 것이다. 86년생 안전권에 들어서게 될 것이니 마음 놓아도 된다. 98년생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94</p>	<p>44년생 끊임없는 관심이 지속되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느니라. 56년생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투명하게 마음을 지어 놓음이 합당하다. 68년생 여러 가지 일이 늘어남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일과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마당이다. 80년생 독창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92년생 절대로 쉽지않은 일을 것이다. 04년생 열렬함에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7, 70</p>
<p>39년생 방심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 빈틈없어야만 한다. 51년생 어려움이 보이지만 대처 방안도 따를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63년생 경험담보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는 것이 정확하다. 75년생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않으면 아니 된다. 87년생 기반이 조성되겠다. 99년생 생 길고 녹록지만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0, 55</p>	<p>45년생 약점을 보완한다면 거의 완벽해질 것이다. 57년생 평이함에 있어 탈피하여 변모를 시도해 볼 것이다. 69년생 패가 거가. 81년생 번거롭더라도 그때그때 확인하는 습관이 실수를 줄여 줄 것이다. 93년생 좀 더 크게 먼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울린다. 05년생 말조심을 하지 않는다면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9, 84</p>
<p>40년생 마음먹었던 바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형태로 정립되는 판세이다. 52년생 차분히 살펴보고 천천히 판단해도 되느니라. 64년생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76년생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인 충실이 합쳐야겠다. 88년생 말은 바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 00년생 험하게 도와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33, 67</p>	<p>46년생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라. 58년생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70년생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해결책을 찾게 되리라. 82년생 너무나 비슷해서 진위를 혼동하기 쉬울 것이니라. 94년생 절실할 필요는 있지만 응통이 쉽지 않을 것이다. 06년생 보이지 않는 곳에 걸릴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8, 74</p>
<p>41년생 관이한 사고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53년생 핵심 가치를 파악할 줄 아는 요령이 필요하다. 65년생 요건을 구비하는 데는 애로 사항도 보인다. 77년생 뜻 이긴 척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관망은 모양새이니라. 89년생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조치가 결실을 낳으리라. 01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니라. 행운의 숫자 : 14, 83</p>	<p>47년생 구부너지 않고 함께 다루는 것도 관찮다. 59년생 시일이 지날수록 진가를 더해갈 것 같다. 71년생 긴장하지 않는다면 놓칠 수도 있느니라. 83년생 기우뚱거리다가 바로 서는 위상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95년생 사소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알라. 07년생 듣고 접하다 보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57</p>